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23호
5월 13일
2023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WCC, WEA, NCCK 배경, 교회본질 회복 동성애·이단·용공주의 배척

사)한국교회보수연합 창립,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 선임



박만수 목사
사)한국교회보수연합
대표회장

사단법인 한국교회보수연합(이하 한보연 KCCU) 창립 및 박만수 목사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4월 27일 (목) 오후 2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5층 대성전에서 1백 오십여 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감당의 각오를 다지며 은혜기운에 드려졌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하게 된 사)한국교회보수연합은 WCC, WEA, NCCK를 배척하고 동성애와 이단, 용공주의를 철저히 금하면서 교회의 본질 확립과 예배를 회복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여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축복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창립 및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에서는 박만수 목사(수색성장은교회, 예정개혁 전임총회장)가 초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본질 확립과 예배 회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예배는 신상철 목사(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한보연 목사(예정개혁총회장)의 대표기도, 백근기 목사(동계단신교회)가 성경봉독, 윤창기 목사(국기원로교회 공동의장)의 특별찬양에 이어 박만수 목사(수색성장은교회)가 설교 말씀을 전했다.

박목사는 왕하 23:21~2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을수록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인타개음이 높아진다. 그래서 새벽마다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바로서면 학교가 변화되고, 사회가 개혁될 것이며, 나라란 1만 교회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불분별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 다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날 조잡한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놓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며 “한보연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단체로 나아가며 한국교회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홍광표 목사(예정한국 총회장)의 헌금기도에 이어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와 김원식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의 축사, 강현식 목사(기하성광교회 총회장), 정사무열 목사(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 총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조용목목사는 “박만수목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쓰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보수연합을 시작하면서 고분으로 추대하라고 하기에, 좋은 취지로 모인다고 생각되어 함께하기로 했다”며 “여러분이 가진 이 강령에 변함없이 나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은재 목사(한국교회방송 대표의 경과보고, 김영완 목사(예정웨민 총회장)의 창립취지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별기도로 윤덕남 목사(기독교사민연대 대표)와 허병주 목사(정지종교 윤리실천연합 대표), 김영신 목사(한복협 대표회장), 김영달 목사(행복이넘치는교회)가 나라와 국가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평화통일과 북한동포를 위해 “한국교회보수연합 발전을 위해” 주례별 기도를 인도했다.

끝으로 최창하 목사(예정개혁회복총회 총무)의 광고에 이어 박중선 목사(합동진리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한보연의 조직은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 △상임회장 신상철 목사, 허병주 목사, 한호안 목사, 조성훈 목사 △고분 조용목 목사 김원식 목사 △지분위원 박중선 목사 정인찬 목사 △서기 김영완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조용목 목사 축사 전문

기독교교회는 교파, 교단, 교단연합회의 수가 많은 것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 이상으로 나뉘어진 경우가 있고 자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동기가 목적으로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의 신앙을 견지하기 위하여 된 것은 선하고 유익한 작용과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부합된 순전한 뜻을 가진 목회자, 교회, 교단들의 모임은 그 수가 많아도 본체될 것 없습니다. 서로 교류하거나 협동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혹은 하나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펴보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나 교단 연합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안제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교단연합회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명칭은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입니다.

시국이 위태롭고 혼란할 때, 제10차 WCC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될 때 대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협의하여 시대 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신앙과 교리적인 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성경은 오직 성경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정확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에 절대적 권위가 있는 법칙이다.
2.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다.
3. 종교다원주의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배격한다.
4.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제도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지한다.
5.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한다.

교회단 단체는 설립되면 규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발전의 의지와 비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독소(毒素)가 개입할 수 있음을 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대를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거룩이 배제된 위대는 사탄에게 속한 세속적 위대가 됩니다. 거룩이 배제된 위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바벨성이 됩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 위대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 안에서 사람이 이룬 것이 차지하는 크기와 의미란 미미한지나 다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화에 합당하게 행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한 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한 일만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에 추구하고 지향스럽게 여기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에 무의하고 해가 되면 모두 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 바울이 내버린 것을 쫓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착태입니다.

저는 박만수 목사님이 차를 이용하신 전국 전도 활동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쓰시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고 감명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한국교회보수연합>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분을 중한 분으로 위촉하려고 한다고 하여서 설립할 모임의 강령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위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을 모두 표명하셨습니다.

좋은 취지와 뜻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되어 박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일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물리칠 이유가



‘믿음의 출처(出處)’



조용목 목사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행 3:16)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믿음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운명에 결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확실하고 귀중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던 중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기적적인 고침을 받게 한 후,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뜰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앉은뱅이가 기적적인 고침을 받게 된 요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요점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입니다. 둘째 요점은,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입니다. 셋째 요점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낮게 하였느니라”입니다.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원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이 실제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은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 속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 영생의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든 예수님 재림 후에 살아있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변화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 신비로운 출생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넷째, 신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 가운데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앉은뱅이가

나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신유의 믿음이 생겨난 결과로 되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유혹과 꾀박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서 세상을 이긴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여섯째,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소망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들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하신 믿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여러 번 예언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속사역이 완수되었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과 장차 우리를 데려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의한 믿음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러한 믿음이 실제와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보수연합>도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교회는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려고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과 성도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의인과 성도라는 신분에 부합(符合)되게 살기 위하여, 의인과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0년 전 제10차 WCC 부산총회를 앞두고 저는 WCC의 정체를 알리며 교회들이 각성하도록 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외에도 책자와 여러 모임을 통하여 나름대로 힘써 노력했습니다.

지역교회 연합회 중진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노파심으로 저에게 말하기를 ‘조 목사님의 뜻은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들과 언론들은 제10차 WCC 총회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제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 목사님이 애쓰는 일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니다.

‘저는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습니까?’ 하기에 ‘저는 성공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성공의 기반 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가진 성공개념을 표명하였습니다. 목회성공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받침’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주님앞에 서는 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면 때가 늦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저는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님에게서 여러분의 모임의 성격과 강령을 듣고서 성공의 토대 위에서 시작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예배소 교회처럼 처음사역 처음 행위를 버리는 일이 결코 없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이단의 성격과 강령에 요지부동하기를 바랍니다.

포토뉴스



감사위원회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의섭 목사)는 지난 5월 8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회기 총회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회기년도를 준비했다. 제반사항과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규정에 의해 잘 갖춰지고 교단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예산위원회

교단 예산위원회(위원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5월 8일(월) 오후 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새 회기년도 예산심의를 갖고 규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했다. 특히 꼭 필요한 곳에 규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웠다.

전세계 복음화에 더욱 앞장 다짐

세기총 미국서 제11차 정기총회, 대표회장에 전기현 장로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가 지난 4월 27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기현 장로(샬롯장로교회)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한 전기현 장로는 취임사에서 “세기총이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중추적인 시기를 맞이해 세기총 회관 건립을 임기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 대표회장은 “세기총이 글로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기총의 미주법인 등록과 기관의 영문번역 등 세기총의 세계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전희수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권계덕 목사님의 성경봉독 후 직전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다. 공동회장 김기태 목사가 ‘나라와 민족 및 위장자를 위해’, 공동회장 김연규 목사가 ‘대한민국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공동회장 송지성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가족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해’, 칠레지회장 석시문 선교사가 ‘3만 한국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한 뒤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10대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로부터 위임

을 받은 직전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부는 준비위원장 전기현 장로의 환영사, 직전대표회장 심평중 목사의 의장인사, 서기 박광철 목사의 회원점명 후 의장 심평중 목사의 개회선언과 7대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했다.

서기 박광철 목사의 회신체택과 전회의록 보고가 있었으며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가 지난 한 해의 사업보고 및 대표회장 활동을 영상으로 보고했다.

한국교회총무회, 2023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예성 이강춘 목사 선출



한국교회 72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총무회의의 신임회장에 이강춘 목사(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선출되었다.

한국교회총무회는 지난 5월 1일(월) 서울 행운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이강춘 목사 이하 신 임원을 확정하는 한편,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신임회장 이강춘 목사는 “전임회장님께서 총무회를 단단히 이끌어 주셨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잘 세우신 토대 위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총무회를 더욱 발전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임원 선출 방식을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논의 끝에 정관에 명시된 그대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천위원회가 신 임원진을 추천했고, 회원들이 이를 그대로 받으며 선출을 완료했다.

총무회의의 신 임원은 △회장 이강춘 △부회장 이영환, 김중명, 고영기, 김보현, 김순기 △총무 정성엽 △서기 장인호 △회계 김일엽 △감사 설상봉, 황연식

한편, 동 총무회는 한국교회 72개 교단의 총무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다.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

아동 돌봄 정책, 저출생 극복 중요성 모색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정철, 이하 출대본)가 주관하는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포럼’이 지난 4월 25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포럼에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가 ‘아동돌봄 정책 보완점 제시’에 대해 씨앗행복한홀스쿨지역아동센터 이영신 센터장은 ‘아동돌봄 현장에서의 보완점’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팀 윤재기 팀장이 ‘마을돌봄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현일 원장이 맡아 수고했다.

지난 3월 말 정책세미나를 가진 출대본은 4월 25일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 정책 국회



포럼’에 이어 △5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CTS 컨벤션홀에서 △6월 ‘인구변화와 돌봄’을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매월 세미나를 개최했다.

출대본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별 대륙본부 출범식과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출대본 경남본부 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5월 11일(목) 오후 2시 경북 의성에

서도 ‘저출생시대 돌봄을 위한 지역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출대본은 출산을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며 전국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업에 힘써 왔다. 특별히 CTS는 출대본을 설립, 지난 2022년 8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전국에 돌봄센터 설립과 운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교단 창립 53주년, 개교 4주년, 창간 5주년 감사

예장총회(정통중앙), 총회직영신학, 기독교중앙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정통중앙) 총회장 이강호 목사, 창립53주년, 총회직영신학 개교 4주년, 기독교중앙뉴스 창간 5주년 기념예배 및 중앙인의 축제(대회장 정점숙 목사)가 5월 1일(월) 오전 11시에 영락기도원에서 96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관 간에 결속을 다지며 축제를 통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이강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회장 정점숙 목사는 대회사에

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통중앙총회가 견고히 세워 지기까지 총성하신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 드린다”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는다”고 전했다.

▲교단창립기념 및 감사예배를 위하여, 재무부총회장 박명우 목사 ▲예장총회(정통중앙) 발전을 위하여, 전남지역부총회장 최민숙 목사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부총회장 최희숙 목사 ▲총

회직영신학 및 인준신학을 위하여, 정학희 장 강경희 목사 ▲기독교중앙뉴스 발전을 위하여, 편집국장 한규섭 목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전북지역부총회장 정봉순 목사 ▲동성애법, W.C.C 저지를 위하여, 전도부장 박정순 목사 ▲전국장로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 이수창 장로가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단 김은숙 지도목사의 ‘축복하노라’ 특송, 경기남지역부총회장 여동연 목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이강호 목사가 ‘새초부터 새말까지’(신 11:8-12)라는 제하에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강성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둘째로,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셋째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시는 성회인 예장총회(정통중앙)이 된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해비타트,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지원키로

탄소배출 감소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한국해비타트’가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친환경 주거지를 조성하고 공공 식수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인도네시아 카리왕시 와나자야 마을 주택은 대부분 대나무나 짚 등의 자재로 지어져 내구성이 낮아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는 홍수, 태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

가하고 있으나, 저소득가정의 경우 대비가 부족하여 인명 및 주택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마을 내 절반에 가까운 주택에는 화장실도 채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강둑에 임시로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사용하고 우물과 하천 등지에서 정수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등 식수 위생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해비타트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든 에코블록(벽

돌)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탄소배출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마을 내 공공 식수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고 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기후변화 적응 지원 사업은 5월 착수에 들어가 9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사랑의 무료진료와 밥사랑잔치

월드뷰티한즈, (사)해돋는마을 공동주최



구호소셜서비스NGO (사)월드뷰티한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교수)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소장 최에스터 교수)는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 신생명나무교회)과 함께 지난 4월 26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장수사진 촬영과 함께 남서울의료봉사팀의 ‘사랑의 무료진료’와 밥사랑잔치 등 사랑

을 펼쳤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월드뷰티한즈와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는 헤어와 메이크업 전문전문가들과 김광웅 사진작가(빛과 예술로 대표)가 함께, 장수사진 촬영 등을 다시 시작해 큰 기쁨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장현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썩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중심으로 섬기는 월드뷰티한즈와 해돋는 마을, K-뷰티소사이어티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밥사랑에 동역할 수 있어 늘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에스터 회장은 “늘 어렵고 소외된 쪽 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 주시는 여러 협력기관에 감사를 전하고 어르신 모두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용기를 북돋웠다.

월드뷰티한즈는 매일 엘드림노인대학을 운영하며 우울증 및 치매를 예방하며 삶의 자존감 함양을 위해 해돋는마을과 함께 매주 5회 만나농사역으로 섬겨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에스터 교수, 장현일 이사장, 장민희 사무총장, 김광웅 작가, 구한 지원봉사단장, 최세연 사무국장, 최세진 영양사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이 참석했다.

장기기증본부-순상담센터, 협약체결

유가족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 시작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태 목사/이하 본부)는 지난 4월 24일, 순상담센터와 생명존중과 나눔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순상담센터는 이번 협약이 있기 전, 본부의 의뢰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올해 6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8주간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이하 도너패밀리)들을 상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너패밀리들은 자신의 슬픔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이 참석했다.



단원들과 사별의 감정을 나눔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치유와 더불어 기증인이 남기고

간 사랑의 가치를 거름삼아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생명나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도너패밀리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건강한 애도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본부 박진태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도너패밀리들에게 깊은 유대감과 함께 생명나눔의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순상담센터와 함께 성숙한 생명나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생명의 말씀 ■



강 태 진 목사

- 대구 경북 지방 회 전임 회장
- 안동시 기독교총연합회 전임대표회장
- 안동성곡교회 담임

최근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 변명하지 말라.”

사랑과 용서의 삶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29-31)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 4:11)

세상이 주고받는 사랑은 부메랑처럼 결국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냥 사랑만하고 그냥 사랑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넘치도록 하여 되돌려 주십니다.

“주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노인 분들과

자주 야유회를 간다기에 걱정이 되어서 “그 경비를 어떻게 다 감당하십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대답이 “아무 걱정 마세요. 회비 거두어서 갑니다. 한금은 제대로 못 드려도 그런 회비는 잘 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돈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한금은 인색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골 1:5)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골 1:11) 피로서 나타내신 사랑이라면 피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핏줄은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은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각 기관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가 아주 많아서 약간 선홍색의 붉은 빛을 띠니다. 그러나 살 속에 깊이 파묻혀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압력이 높고 속도가 아주 빠르기에 살 속에 깊이 파묻혀 있지 않으면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러

므로 혈관도 굵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러나 정맥은 그 반대입니다. 동맥으로 흐른 피가 체내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의 불순물을 함유하여 심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정맥은 핏줄입니다. 압력이 낮고 흐름도 느리고 혈관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동맥은 끊기면 즉시 죽지만 정맥은 끊겨서 상당량의 피가 흘러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맥과도 같습니다. 눈으로는 잘 안보여도 언제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신선한 영양을 항상 공급하십니다. 그 사랑은 깊고 튼튼하므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정맥처럼 불순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핏줄이 흐르듯 우리의 연약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므로 되돌려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공급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나에게서는 정맥이요 하나님 편에서

는 동맥으로 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부족한 용서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천국이 걸어가야 할 길이 사랑과 용서의 길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 5:44-45)

동 정

아람대상 시상식



제5회 아람대상 시상식이 지난 4월 28일(금)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신학회 아람대

서울신대 총장에 황덕형 박사 재선



서울신학대학교 제20대 신임 총장으로 황덕형 현 총장이 재선됐다. 서울신대 이사회(이사장 백운주 목사)는 지난 5월 9일(화) 이사회를 열고 황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총장 선거에는 황 총장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재선된 황덕형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더 크다. 더 큰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 공간조성 MOU



국제 주거복지 NGO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윤형주)는 이케아코리아와 취약 이웃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해비타트와 이케아코리아는 더 나은 삶, 지속 가능한 생활의 실현, 세상에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국교회법학회 10주년 예배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한제)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선포했다. 법학회는 지난 4월 25일(화)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1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을 가지며, 한국교회 화평의 법적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태국

태국에 복음의 씨앗이...

씨앗디베마이킬! 평안하셨는지요?

태국은 도로마다 인파와 차량으로 가득했던 송크란 축제 물 축제(4/13-15)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살롬으로 인사드리며 선교소식 드립니다.

매셋너이교회 방문

매셋너이교회(1월 27일)를 김정배 장로님 부부(이명순 권사, 그말씀양분교회)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건축을 완료하고도 코로나에 걸려서 한달 예배에 가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았는데 늦게나마 다녀오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짜끄리풍 목사님과 함께 4륜구동 차량으로 신길을 왕복 8시간을 가이하는 장거리 여정이었지만 산속 깊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분투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나니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준비한 쥐 고기로 인해 곤혹스러운 시간이긴 했지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선교지를 선교사만큼이나 사랑하는 장로님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선교팀 및 방문

-원주새동네교회

원주새동네교회(이애원 목사)의 부목사(이상봉 목사) 외 16명의 학생들이 10월21(2월 1일부터 9일까지) 방콕안디옥교회에 머물며 지방에 개척된 교회들을 방문하고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태국의 더운 날씨와 사나운 개들의 위협 속에서도 마을을 다니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저녁에는 집회(악기연주와 워십)로 교회를 섬기는 학생들의 마음이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반부이교회와 논쑈분교회와 캣똥개우 교회를 함께 다녀왔는데 특별히 논쑈분교회에서는 우기철이 되면 땅이 질퍽하게 빠져서 불편함이 많았던 교회 앞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흙과 시멘트를 묻히며 열심히 일을 해 줘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한 이상봉 목사님과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용선 목사외 8분 방문

3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집사대원 동기인 최용선 목사와 8명의 목사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콕안디옥교회와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신우회

대한항공신우회 권력희 집사와 김성희 집사가 태국 비행 일정이 있어서 방콕에 왔다가 주일을 맞아 방콕안디옥교회에 와서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태국어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태국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만큼 주님과 선교지를 사랑하는 두 자매님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큐티 세미나



3월 20일부터 23일까지(2박 3일간) 반부이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집사대원 동기 고정영 목사와 이종운 장로께서 오셔서 목회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큐티 세미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방에 흩어져 있던 목회자들 부부와 자녀, 그리고 반부이교회 성도들이 바쁜 농번기 중에도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편도 8시간 운전과 3일 동안의 통역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날씨도 덥고 선풍기 바람도 뜨거운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에 집중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고정영 목사님과 이종운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세미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원주단구침례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인수를 위한 연수교육

4월 2일부터 6일까지 방콕안디옥교회에서 TAM 목회자 연수교육을 가졌습니다. 목회경륜 10년 20년이 넘었어도 목사인수를 받지 못하던 전도사들을 위해 예하성 총회와 포항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님의 후원으로 4분의 목사님(배진기, 김인찬, 오승욱, 신재영 목사)이 오셔서 집중강의를 해주셨습

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배움의 열의를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수교육에 임하는 목회자들이 참 고맙고 무엇보다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하성 총회(선교국)와 배진기 목사님의 지원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열정해주신 4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일정 및 선교사 비자

태국교단 내홍으로 인해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잠시 관광비자로도 있으면서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마침 결혼 주례(이동명,한지혜)를 위해 고국에 들어가 있는 동안 비자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찬 감사를 드립니다.

비자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대전으로 지대 배치를 받은 선거를 만나고 왔습니다. 더욱 늠름해지고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생명사내법인

3월 16일(목)은 돈부양 구청에서 나와서 법인설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법인설립 이후 10여 년이 넘는 동안 법인을 통한 이웃돕기(생필품, 생계비지원, 장학금, 영아 및 한국어교실, 악기교실, 병과 후학습지도, 환우돌봄 등) 사역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소천하신 분들이 꽤 되고 지금도 여러 성도들이 법인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수입 없이 법인통장 예치금을 사용하다보니 법인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청의 법인실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받았는데 정기적인 후원회 기본 예치금 20만 바트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방콕안디옥교회와 지방에 개척된 교회(나콘파놈, 반부아, 씨사렛, 논쑈분)와 협력하는 10여 개의 민족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2. 연수교육을 받은 4명의 목사인수를 위해
 3. 미래 일꾼이 될 태국어린이를 위해, 학교(선교회) 사역을 위해
 4. 생명사내법인이 복음의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본예치금 20만 바트와 운영에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5. 저희 부부의 선교사역과 건강, 주선 주인의 배우자와 선거의 군생활을 위해
- 선교의 귀한 섬김과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불철 미세만민과 시간과 사고 속에서 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강건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4월 15일

김학봉 · 서미식 선교사 드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2023년도 은혜와진리교회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지난 4월 27일(목) 저녁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각 성전 교회학교 교사와 부서 담당 교역자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오전 15: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특강을 통해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며 교사들의 사명감과 신령한 자 긍심을 한껏 고취시켜 주고,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헌신을 하도록 축복해 주었다.

이날 세미나는 교회학교 행사운영국장 김요한 목사의 사회로 수원성전 중등부 부장 이활빈 장로의 기도, 신임 정교사 임명과 근속교사 시상식,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특강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은 첫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둘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

신 기쁨이며 셋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여서 봉사하는 것임을 알고 이 은혜 가운데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역설하고,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며 교사들을 격려했다.

특강 전에 신임 정교사 임명식과 근속교사 시상식이 거행되어 많은 신임 교사들이



정교사로 임명되었고 각각 40년, 35년,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제 근속한 347명의 교사가 영예로운 근속상을 수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조용목 목사는 수상자 대표로 40년을 한결 같이 교사로 헌신해 온 과천성전 초등부

박예령 교사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모든 근속상 수상자와 신임 교사들을 치하하며 격려했다.

장로장립 임직 및 직분자 임명 감사예배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4월 30일(주일) 오후 4시 30분 새로운교회에서 장로장립 임직 및 직분자 임명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영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회계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기도, 권승철 목사(회복교회)의 성경봉독과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녹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백 목사는 행 6:1-7 말씀을 본문으로 ‘은성도들이 칭찬하는 일꾼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임직자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이어 2부에서는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의 집례로 이귀국, 김용석 안수집사의 장로장립



임직식을 가졌고, 3부에서는 새로운교회 담임 최규식 목사의 인도로 최충호 외 4명의 안수집사 임직과 차수례 외 10명의 권사들이 임명되었다. 이날 임직 및 임명된 직분자들은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본질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추사는 최형택 목사(광양은혜와진리교회)가 전했으며, 권면에는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가 맡았다. 끝으로 전임 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새로운교회)는 당회장직을 양도하며 마지막으로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풍성한 만찬을 나누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월례회 갖고 뜨겁게 기도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4월 25일(화)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옥도교회(담임 윤득주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서기 서기찬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요 3:16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VIP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 재무 이종섭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이성석 목



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를 마친 후 2부 월례회에서는 회원호명, 교단·지방회 보고 및 안전 토의, 1차 임

원회의 결의안 보고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회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 의지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봉근 목사)는 지난 5월 3일(수) 오전 11시 후영순복음교회(담임 김경준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신현찬 목사(기쁨충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장성미 목사(은혜원교회)의 대표기도, 김경준 목사(후영순복음교회)의 복 7:11-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구도자의 길을 가

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깨달은 것은 고행하고 수도해도 결국 자연 그대로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본문의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으로 오직 인간의 소망이 그에게만 있기에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2부 월례회의는 지방회 24개 교회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장 이봉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각종 보고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교단 총회 참석에 대한 광고와 내년 3월 중순 경에 있을 유럽 종교개혁지 여행 건에 대한 광고 후에 지방회 환우 목회자들을 위한 통성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11회 정기총회

 고문 최혜선 사모 다락원교회	 고문 김향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전직 회장 김향란 사모 모향인디교회	 전직 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순복음교회	 전직 회장 신종신 사모 정신교회	 전직 회장 차주현 사모 인동성교회	 전직 회장 윤규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전직 회장 권귀순 사모 이세이순복음교회
 회장 신명희 사모 무량순복음교회	 1부회장 이윤순 사모 갈렐리온성교회	 2부회장 김숙향 사모 인성명교회	 총무 김혜희 사모 리산순복음교회	 부총무 조은숙 사모 영광교회	 서기 나명숙 사모 상주성교회	 부서기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교회	 재무 조종숙 사모 오성서교회
 부회기 이윤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일시| 2023년 5월 15일(월)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오후 1시 예배후 사모회 총회)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3층 세미나실

|참석대상|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교단산하 전국교회 목회자 사모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신명희 · 총무 김세희 (010-2610-3816)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 2)콜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강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 · 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 감당

이천 올면 일대, 파크엘림 일대 걸으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산하 걷기동우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결성한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정석현 목사) 산하 걷기동우회(회장 정영진 목사) 회원들은 지난 4월 27일(목) 이천 올면 일대, 이천 파크엘림 일대를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전임 총회장 김용덕 목사를 비롯 동우회 회원들은 경기도 이천시 올면 금율로 오성사

랑교회(담임 박흥렬 목사)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회장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석현 목사의 대표기도, 전임 총회장 김인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14:14-16 말씀을 본문으로 '잃어버린 영혼 구하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에 구원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확증이다. 친구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2부 제목기도 시간에는 기호선 목사가 '교단을 위하여', 최남성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박흥렬 목사가 '동상에 WCC 및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하여', 김남수 목사가 '남북평화통일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박흥렬 목사의 광고, 전임 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원들은 2부 행사로 정책위원장님께서 제공하신 오찬을 함께한 뒤 이천 올면 일대, 이천 파크엘림 일대를 걸으며 심신을 단련했다. 회원들은 이 일대를 답사하며 걸으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사랑 나눔의 시간을 갖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회지로 향했다.

“서울시의 퀴어행사 불허 결정, 환영한다”

한기총, 성명 통해 “바람직한 결정” 다행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기총)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서울시가 '불허' 결정한 것에,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서울시는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불허 결정을 내리고,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에 사용을 허가했다”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는 동성애 관련 행사가 서울광장에서 행해지는 것을 적극 반대해왔다”며 “창조의 질서에도 맞지 않는 죄적인 모습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비판하거나 지적하지도 못하게 하고, 행동이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치달

을 뿐 아니라 동성애가 방송과 교과서 등에서 조장되는 것을 볼 때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바람직한 결정을 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일인가”라고 지적하며 “설령 CTS문화재단이 같은 날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퀴어 행사는 불허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기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앞으로도 동성애를 적극 반대하며,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애 관련 조례, 교과서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전명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잘못된 것과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국민 70% 부적절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합법화도 다수가 반대 의사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준비위원회가 최근 쿠팡이나 엔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9.2%

적절하지 않다고, 20.2%는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서울시가 퀴어축제 주최측에 서울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한 가운데, 국민들 절대 다수도 퀴어축제 장소로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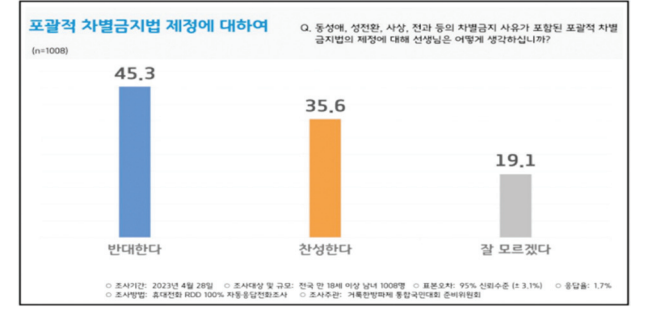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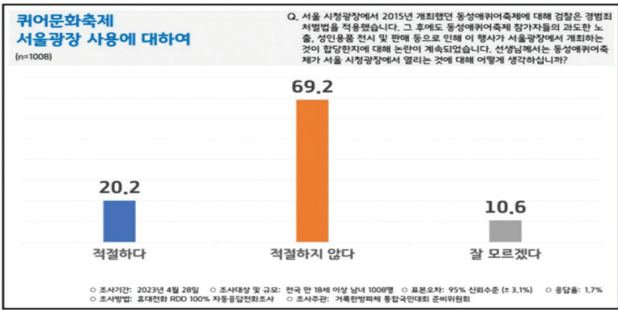
퀴어문화축제가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4.8%가 그렇지 않다고, 15.7%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동성애자들이 주최하는 서울퀴어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57.6%가 들어 본 적이 있다고, 35.6%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62%가 반대, 26.8% 찬성했다. 동성애·성전환·사상·전과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45.3%가 반대, 35.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3.1%), 응답률은 1.7%,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RDD 100% ARS 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2023년 어린이날 메시지

“어린이에 대한 소중한 선물은 자연환경을 통한 생명교육과 예수님을 통한 영적생명교육이다”

자연적으로 보면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이다. 누구나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푸르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로부터 미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에 5월은 '자연과 신앙'에 대해 우리들 지혜롭게 해주다. 유독 어린이날이 그렇다. 어린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관계 그리고 소망'은 어린이의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여생을 바라보는 사과의 틀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이 소중한 절기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크고 유익한 선물은 무엇일까? 연중 많은 절기와 기념일들이 줄줄이 이어지지만, 어린이날만은 어린이나 부모 어른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긴장하게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사회나 지구촌 환경이 온통 하절점성이라는 좌표가 찍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깊은 묵상과 함께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어야 할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싶어 하는 것들을 시주거나, 원하는 스마트폰을 바꿔주는 정도의 선물 고르기에서 벗어나 먼 장래를 고심하며 긴급한 선물이어야 한다. 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살림바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 교육과 신

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메시지를 발표하고자 한다.

1. 오늘날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은 스마트폰, 마약, 학폭, 성 범죄 등으로 오염된 환경이다.

정치가나 교육자나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의 가치를 내걸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자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꿈을 질식시켜 버릴 정도로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온라인 세계 속에 범람하는 온갖 정보들을 흡수하며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과 음란물에 노출되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에게는 마약, 학폭, 성범죄 등 악마의 손길 이 깊숙이 침투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환경은 어린이 성장의 방향과 목적 상실, 불안과 고독의 스트레스 그리고 마침내는 고립화와 무기력 상태에까지 빠지게 만든다. 정보 선택 과잉으로 심신은 약화 되고 스스로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어린이, 청소년이 될 위험성이 높다. 이것이 생명 경시 사회이며 죽음의 도시 교육환경이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 앓음인지를 지적

하지 못한다면 결코 어린이들을 현명하게 성장시키지 못한다. 만일 어린이들의 불평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염된 자금의 환경을 방치하고 간과한다면 최악의 뿌리는 우후죽순처럼 자라날 것이다. 콘크리트 빌딩과 불순한 광고물로 둘러싸인 도시 환경은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씨앗 트는 것을 가로막는 구조이다.

2. 어린이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다. 어른들 기준 아닌 어린이에게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

어린이날은 상업적 휴일이 되어 버려서는 안된다. 어린이날은 다른 휴일과는 달리 어린이를 위한 날이어야 한다. 심각한 것은 인간의 지성능력이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한계 없는 자유의 방종과 절제 없는 소비 시대에서 '생각을 잃어버린' 어린이가 양육되고 있다. 부모 어른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어린이를 자기 뜻에 맞게 미래 설계물 대신해주려 억지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린이에게 물질적, 지식적이든 즉흥적인 정보들을 많이 충당시켜 주어야만 칭찬받는 부모, 자랑스러운 선생, 자랑스러운 어른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이 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교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와 가정세대에 맞추는 교육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필요로 한 교육과 환경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보아야 한다.

3. 확립화와 추종화 아닌 어린이들의 인생 존중과 순수함 가운데 자라나게 함이 요청된다.

어린이날 어린이에 관한 많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과연 참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만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 아이들이 처한 현재 상황이 어둡고 좌절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소영웅주의에 편승한 나머지 확립화와 추종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린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막게 해주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갖게 해 주는 욕망의 충족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린이날이 되면 어른들은 의례적으로 선물을 건네며 격려한다. 그러나 한 번쯤 어린이들에 대한 선물 이 과연 순수한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에는 고통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선물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다. 먼 훗날 어린이 인생 자체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중독성 있는 것들이다.

4. 인간성 파괴와 비인간화나 비도덕화의 아미노적 현상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오늘의 다원화된 현대사회가 인간의 이

성 중심적 주지주의 교육에 함입이 가시적이며 물질 중심적인 현란한 과학 문명과 기계 기술을 쫓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의 소재인 이성과 기술이 가져온 역기능에 의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는 본래적 속성인 인간성 파괴와 비인간화나 비도덕화의 아미노적 현상, 그리고 자연 생태계 훼손과 파괴, 그 대가로 인한 인간 실존의 타락과 가치를 위협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 이런 환경과 원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물질주의 교육은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고 정의할 때, 굴절된 현대인의 의식 구조로부터 도덕성 위기 극복과 새로운 인간성 회복은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상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자각하는 어른이 그리 많지 않고, 이를 말리거나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부모도 많지 않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다. 인간성의 회복과 생명 존중 의식, 나아가서, 생존하는 삶의 환경 개혁과 함께 지성, 덕성, 경건을 배양할 교육의 내용은 물론 지식의 형성 과정인 인식론, 자연의 원리와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것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린이들을 중독성에 젖게 하는 요인은 없는가를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5.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빠르면 빠른수록 좋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부가 궁극적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마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생명을 얻고 처음 직면한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느꼈을 그 신비한 아름다움과 호기심으로 마음이 설렘을 겪었던 것 같은 느낌이다. 어린이들이 인생의 기초와 방향, 목표와 목적이 정립되지 않은 시절에 그와 같은 경험을 가져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린이 시절은 전 인생에서 새로운 감각과 지적 수용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에게 지금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약속이 자란 이후에 그걸 스스로 비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그것은 교육 현장과 어른사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좋은 가치관을 쌓게 해주는 일은 빠르면 빠른수록, 그러면 더 좋을 것이다. 세상 욕망과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약속에 익숙해지기 전에, 자정력을 상실하기 전 좋은 선물로 주어야 한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개회설교

저녁집회설교



김병목 목사
교단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교단 직전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일시 2023년 6월 19일(월)~6월 21일(수) 2박 3일

장소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1길 21-4/마지리236-3)
☎010-7477-8018

대상 전국 여교역자국
문의 실장 조영란 목사 (010-7477-8018)
계좌번호 농협 351-1062-4189-93(백영자)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시는 글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존경하는 여교역자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도 영혼을 사수하고자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주의 권능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로 펜데믹이라는 상황에 놓여 그동안 만나뵙지 못하며 사회적 편견으로 교회의 시련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얼굴을 대하고 모일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전국 여교역자들이 함께 이 시대적 사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4:9~12 말씀에 “두사람이 한사람보다 나은은 그들이 수고 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능력입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는 주제로 다시 모여 영육으로 새로워지길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여교역자님들을 초청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2023년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19일	20일	21일
05:00		새벽예배	새벽예배
06:00		설교: 탁정신목사	설교: 한순남목사
07:00		아침식사	아침식사
08:00			폐회예배
09:00			설교: 정부용목사 고문
10:00			
11:00		레일바이크	
12:00		점심식사	
13:00			
14:00		평창 600고지	
15:00	등록		
16:00	개회예배		
17:00	설교: 김병목 총회장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20:00	저녁집회	저녁집회	
21:00	설교: 신재영총회장	설교: 백영자목사	
22:00	기도회		



정책위원장 조영란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벤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직

임원단



예배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복지부장
진리순복음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암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획실장
일산벤엘교회
조영란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원교회
조은혜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앙지교회 지부장
정예스더 목사



신복음시랑교회 지부장
이현옥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지부장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지부장
김정순 목사



사밧기예성온나무교회 지부장
표한자 목사



예수시랑교회 지부장
예정희 목사



늘평복교회 지부장
신종일 목사



초심교회 지부장
김희자 목사



늘평안교회 지부장
서명란 목사



충남지교회 지부장
한정숙 목사



충주지교회 지부장
김문자 목사



경남지교회 지부장
정금자 목사



영남동지교회 지부장
이순애 목사



부산지교회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부산동지교회 지부장
황연선 목사



광주지교회 지부장
은혜의영광교회
김정순 목사



호남지교회 지부장
의금교회
김순덕 목사



은진지교회 지부장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아신대학교, 개교 50주년 맞아 新 UI 선포식과 함께 새 출발 다짐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학교의 새 UI(University Identity · 대학이미지 통합시스템)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아신대는 지난 5월 2일(화) 오전 11시 30분 강당에서 정홍열 총장과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장호 이사장을 비롯한 이재훈 이사, 교수, 직원, 학부생, 졸업생 등 구성원 약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UI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홍열 아신대학교 총장은 “아신대 새 UI는 말씀을 상징하는 성경을 모티프로 세상을 향한 아신대의 섬김

과 미래를 향한 비상 그리고 선교를 의미한다. 또한 아신대는 ACTS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져있는데 ACTS이니셜을 단단한 기둥으로 형상화 하여 대학 교육의 기반을 쌓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전했다.

아신대는 지난 2021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현재의 ‘아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바 있다..

다가오는 2024년 개교 50주년, 희년을 맞는 아신대학교는 교회연합으로 세워져 운영되는 국제적인 복음주의 신학대학교이며 신학연구와 선교교육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사역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면에서 이어짐

6. 자연은 마음을 살린다. 어린이에게 자연환경을 통한 생명 교육, 인성 교육을 하자.

자연은 어린이 마음을 살린다. 어린이들에게 자유롭고 자연 친화적인 사색의 놀이터가 사라진 지 오래다. 아이들이 디지털 통신기기를 끼고 살다 보니 밖으로 뛰어나가 도전과 모험을 시도해 보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디지털 자국이 넘쳐나다 보니 인간의 뇌는 이를 갈라내고 분류하느라 바쁘다. 도시 환경은 우리의 뇌를 실제로 변화시켜 불안, 감정 장애, 정신분열증 등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자연은 도심의 거리나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감각들을 제공한다. 자연에서는 정보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뇌의 주역력 체계는 깊은 사유와 반성 같은 고차원적인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에게 자연은 무한함과 영원함에 대해 접촉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과 들의 자연은 꽃과 나무, 곤충과 벌레, 새들에게서 생명의 근원을 찾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7. 아이들을 행복도 높은 자연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자.

브렛 맥크리켄은 그의 책 『하해 피라미드』에서 한국에서 시행된 두 가지 연구에서 자연의 진정력(眞摯力)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중독 어린이를 숲으로 보내 여행하게 한 뒤 검사해 보니 코티솔(cortisol, 급성 스트레스 반응 물질)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며, 불안도 낮아졌다는 것이다. 동양은 ‘자유’의 숲을 조성해 미디어와 스크린을 끼고 사는 디지털 유령들이 도시를 떠나 신축하고 산소를 마시며 삶을 추스르도록 돕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미국에서도 산림 요법, 의사들의 자연 처방전으로 야외에서

더 머물도록 권한다면 자연이 이런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진정한 영적 현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머무름 때 가장 큰 평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8. 어린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어린이에게 줄 수 있고 반드시 주어야 하는 최고의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물질 선물이나 자연적 선물보다는 영적 선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다면 참다운 행복과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는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바다. 한편으로는 자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을 깨닫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성장에 필요한 빛을 받게 된다면 어린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선물이다.

9. 어린이 영적 성장의 시작점은 미래 아닌 지금 당장 어린이 시절이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는 ‘미래 세대’ 또는 ‘다음 세대’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기성세대들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지향해나갈 주역들이다. 우리에게 오늘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뿌릴 수 있을 뿐이고,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열매가 맺힐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나 어른 모두 어린이들과 함께 영원한 오늘의 세대이다. 현재의 주인공인 어린이들 마음에 진리의 씨를 뿌려주어야 한다. 오염된 세상과의 접촉점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발광체를 제공해 주며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강제나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자각의 기회를 어린이 시절부터 갖게 하는 것만큼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바는 없다. 천국 선물은 어린이 순수성을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3일
산물을 꿈꾸는 나비행동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신록의 송가(頌歌)

신록 깊은 언덕 산하리
쉬어가는 백운 걸린 청산이여
가시는 이별 서러워 봄비에 신록을 적신다.

아- 그리운님!
가는 세월 하루가 천년인데
마음 불잡을 길 없어 천년을 하루로 접었다네.

아, 그대여
온몸으로 살아온 세월
우리 모두 함께 울고 우리 함께 웃었다오.

지금 여기 있어
눈물의 손수건 적셔
먼발치 이별이 기다리네.
우리 여기 있어 가시는 걸음차마 붙잡지 못하네.

마음 띄어한 세상 구름이라.
천상의 송가 가슴은 시려운데.
눈물의 무게 견딜 길 없아라.

해 맑은 동편 찬란한 영광의 나라.
눈물 없고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품이여.
가시는 걸음 이내 편히 쉬소서.
가시는 걸음 이내 편히 쉬소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지혜여, 명철이여 그 때는 아무도 모르리
지혜지어 남은 날을 계수하라.
그대를 위해 영원을 준비하라.

한 생명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의 깃발을 높이 들라.

오늘도 전도왕 박영수목사는
장례식장에서도 구령에 불타는 소명으로
영접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가족세트전도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봄바람 타고 신부전 환자들에게 희망을”

만성 신부전 환자 종합 휴양시설 ‘제주 라파의 집’ 관광 재개해

“제가 지금까지 가본 곳중에 제일 예뻐요!”

지난 5월 3일(수) 제주 표선면에 위치한 유채꽃광장에 들어선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3만평 가까이 되는 큰 땅에 빼곡히 노란 꽃봉오리를 터트린 유채꽃을 보며 투병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은 이들은 만성 신부전 환자와 그 가족들이다.

신장이 모두 망가져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투병생활 중 잠시 쉬를 찾아 제주를 방문했다.

감탄을 자아내는 제주의 풍광 앞에서 이날 오전까지 혈액투석기에 매여 한겨울 표정이 역력하던 환자들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미소가 내려앉았다.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지난 3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라파의 집을 이용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2007년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치료와 휴양을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라파의 집은 혈액투석으로 이틀에 한 번 하루 네 시간씩 치료를 받으며 한겨울 투



병생활을 이어가는 환자들과 오랜 간병으로 지쳐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주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당 프로그램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재개하면서 라파의 집 이용객들이 진정한 제주의 봄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포근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3일 오후,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라파의 집 코비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경주에서 온 만성 신부전 환자 조현일 씨(만 60세, 남)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투병 이후로는 혈액투석에만 매여 사니까 봄 되면 남들 다 가는 벚꽃구경도 엄두조차 내지 못 했어요.” 라파의 집 방문을 통해 투병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다는 조 씨는 간만의 봄나들이에 혈액투석의 피로감마저 말끔히 가시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용객들을 실은 관광버스가 유채꽃 평소인 녹산로에 도착하자 조 씨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담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날 녹산로는 만개한 유채꽃밭이 깔고 없이 펼쳐지며 햇노을을 하늘거리고 벚꽃나무는 연분홍 빛 꽃비를 흘날리며 봄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월간목회」 5월호 챗GPT와 목회

챗GPT 출시 이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실생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들에 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에 「월간목회」 5월호에서는 목회자들이 보다 효

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해 보고자 개인의 신앙은 물론 신학 연구와 설교, 양육, 상담과 같은 목회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교육에 있어서 이미 시작된 변화와 앞으로 마주할 변화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총선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생김새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아름다운 말



한 마을에 훌륭한 존장이 있었습니다. 존장받는 존장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요?”

그러자 존장은 “자네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에 젊은이는 열을 내면서 대답했습니다. “말씀 마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만 눈을 밝힐 뿐 양보할 줄도 모르고 덕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존장은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다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에 존장은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지요. 어린이를 사랑하고 인정이 넘치고 노인들을 공경합니다. 들꽃 하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연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존장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그렇다네.”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곁에 있던 제자가 “아니 존장님,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말씀하시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존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느 마을이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인데, 어느 한 쪽만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지니 달리 부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단체, 혹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은 성향이고 자신의 책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사명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언어가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니라”(잠 25:1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의 교회 권사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

깨어 있으므로 얻어지는 행복감.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그 짧은 숨 쉬는 시간에

스쳐가는 바람결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순간의 기쁨 놓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케 하시네.

날마다

순간마다

버려지는 시간 속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인한 평안함.



날마다 주시는
순간을 놓치지 못하면
기쁨, 평안 놓치버린다.
순간의 위력을 깨닫게 하시는
기분 좋은 밤이다.

사설

국익·외교·국방에 여·야 따로 없어야

국익과 외교,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게 정치판의 상식중의 상식이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민은 예외국이다. 상대 진영에서 하는 일이라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사정없이 상처를 내는 게 지금의 한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과 폄하가 일상이 되어 버렸고 중국, 북한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자비와 너그러운이 깃들어 있다. 그 결과 더 무자비하고 더 무시하고 마치 주머니속의 공기 돌처럼 가지고 노는 것이다. 주권국으로 보지않고 자신의 속국처럼 하대를 하고 막말을 쏟아 뱉고 조롱하기 일쑤다. 과거 정권 속에서 북한의 막말 퍼레이드는 일일이 거론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알고 속상해 하는 일이다. ‘살은 소대거리’, ‘버저리 대통령’...등 그런데도 한없이 굴종하고 한없이 굴복하면서 매달렸다. 그러면 그들은 갈수록 더 당당해지고 더 담대해져 갔다.

이진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4월 24일 미국 스탠퍼드 강연에서 말하기를 ‘한반도 평화와 6.25 전쟁 종전 선언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이 김정은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일성, 김정일 집권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북핵은 북한의 인권과 병행해야 하는 데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일부터 북한의 인권은 무시하고 무관심하여 김정은을 더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미국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의 처참한 인권을 온 세상에 낱알이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인권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감춰주고 거론조차도 않고 현재 북한에 구속돼 있는 한국인들의 송환조차도 거론하지 않으면서 김정은을 더욱 담대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는 안 된다는 게 윤 정부의 방침이다.

인권 유린을 알려야만 인권 유린이 줄어드는 것은 상식이다. 윤 정부는 북핵과 인권문제를 병행처리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죽기가 쉽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이념 문제다. 이념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미에서 거둔 성과가 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튼튼한 안보 문제와 함께 외교,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양국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 어느 때보다도 양국 간에 선린 우호가 절실한 필요한 시점이었다. 한국은 70년 전 소련, 중국,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국토가 무참하게 짓밟힐 때, 미국의 도움이 컸다. 미군 17만여 명의 희생으로 이 나라를 지켰기에 ‘혈맹’으로 맺은 관계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 정부가 비미(非美) 친중(親中) 종북(從北) 성향을 띠면서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를 통하여 이런 양극단이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주요 순방 일정은 백악관 공식 국빈 만찬과 미 항공우주국 방문, 미 상·하의원 연설, 펜타곤(미 국방부) 방문과 미군 수뇌부로부터의 브리핑, 군지휘통제센터 방문,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버드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미 의회 연설에서 무려 26번의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영어 연설에서는 더욱 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개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핵우산(핵 확장억제)에 대한 명문화(明文化)를 받아냈고, 그 외에도 경제안보협력 심화, 첨단기술동맹 심화, 양국 국민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 확충,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공동 기여하는 동맹국 구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5개의 기둥을 성실히 세워나가는데 실무적, 실제적 효과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다고 하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되, 부정(否定)하는 부정(不淨)은 하지 말자. 국가 존망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껄떡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들은 멈춰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학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 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 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임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학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복자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소전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독양일월.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양평동 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 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구위원회 의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인사실증명) 1부
- 목회자 소속, 자격 증명서 1부(예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령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